高麗圖經에 보이는 器皿

崔 夢 龍

一. 序
二. 器皿
三. 器皿의 性格
四. 度量衡
五. 問題點

一. 序

宣和奉使高麗圖經은 宋의 徐兢이 高麗 仁宗元年(서기 1123년)에 송도를 다녀간 후 지은 책으로, 이는 당시 고려사회에 대한 民族誌(Ethnography)的인 記錄에 해당한다.

그중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器皿에 관한 것은 卷 30에서 32까지의 세권에 수록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기명을 통해 당시에 쓰이던 그릇의 재료, 도량형단위, 용적 등에 대해 간략히 살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서긍이 당시 보고 갔으리라 짐작이 되는 고려청자 중 純青磁를 指定文化財目錄에서 뽑아 아울러 소개해 두고자 한다.

二. 器皿

器皿은 高麗圖經 卷 30에서 卷 32까지의 세권에 모두 수록되어 있는 데, 卷 30에는 9종, 卷 31에 10종, 卷 32에 11종의 모두 30종이 보이며, 그 내용도 향로에서 巨鍾과 가마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여기에 쓰여진 재료는 구리·은·금칠에서 瓦器·陶器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이며 또 당시의 각종 생활용구와 사치품도 모두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소개된 器皿은 순천관에 손님접대용으로 비치된 것들로서 이들 모두가 상류사회에서만 사용되던 일급품으로 서민들의 일상 용기들과

는 거리가 있던 것으로 여겨진다.

서긍이 6월 12일 송도로 들어와 7월 13일 귀국할 때까지 43일 동안 체류하면서[1] 보고 기록한 器皿은 모두 순천관 소속의 그릇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성 싶다.

세권에 소개된 器皿, 재료, 척, 용적을 각각 소개하면 다음 표와 같다.

册	器皿	재료	높이	지름	폭	너비	용적
卷30 器皿 1	1. 獸爐(향로)	은	4척			2척 2촌	
	2. 水瓶(주전자)	은	1척 2촌	7촌			6승
	3. 盤盞(받침대 있는 술잔)	은					
	4. 博山爐(향로)						
	5. 酒榼(술그릇)	금칠	1척 8촌				7승
	6. 鳥花洗(세수대야)	은				1척 5촌	1두 2승
	7. 面藥壹(약물 넣는 병)	금칠	5촌	3촌 5푼			1두 2승
	8. 芙蓉尊(술병)	은, 동					1승
	9. 提瓶(들고다니는 물그릇)	도금					2승
卷31 器皿 2	10. 油盎(기름병)	백동		2촌			3승
	11. 淨瓶(목이 긴 병)		1척 2촌	4촌			1승
	12. 花壺(꽃병)		8촌	3촌			
	13. 水釜(세발솥)	동	1척 2촌	3촌		3척	1석 2두
	14. 水罌(물통)	동(뚜껑)	1척	1척 2촌		3척	1두 2승
	15. 湯壺(더운물 담는 그릇 茶器)		1척 8촌				2두
	16. 自銅洗(세수대야)	적동					
	17. 鼎爐(향로)		1척			6촌	
	18. 溫爐		8촌			1척 2촌	(쟁반 8촌)
	19. 巨鍾(동종)						
卷32 器皿 3	20. 茶俎	은					
	가. 金花鳥盞(찻잔)						
	나. 翡色小甌 (차마시는 그릇)	磁器(翡色青磁)					
	다. 銀爐湯鼎	은					

(1) 車柱環, 국역고려도경, 민족문화추진위원회, 고전국역총서 119, 해제, p. 3

冊	器 皿	재 료	높 이	지 름	폭	너 비	용 적
卷32	21. 瓦尊(술병)	瓦器					
器皿 3	22. 藤尊(등으로 감은 술병)	瓦器					
	23. 陶尊(술그릇)	磁器(翡色青磁)					
	24. 陶爐(향로)	磁器(翡色青磁)					
	25. 食罩(상덮개)						
	26. 藤籠(광주리)	白藤					
	27. 鬻釜(삶는 그릇)	철	8척			1척 2촌	2승 5작
	28. 水瓮(물독)	陶器	6척			4척 5촌	3석 2승
	29. 草苦(포대, 가마니)	풀					
	30. 刀筆	나무					

三. 器皿의 性格

우선 여기에 소개된 기명의 재료를 보면 은제가 가장 많은 점이 눈에 띈다. 이들은 順川館이란 영빈관에 안치되어 있던 최고급 官物이기 때문에 은이라는 고급재료가 이용되고 있던 것 같다.

은으로 만들어진 器皿들은 향로, 주전자, 술잔, 세숫대야, 약물 넣는 병 그리고 차를 끓이는 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이들은 일상용품보다 사치품에 속할 가능성이 더 많다 하겠다. 또 간혹 금칠까지 한 것도 보이는 데 이러한 것도 또한 접대용의 官物로서 당시 고급품에 속하던 器皿이라 하겠다.

따라서 권 30과 권 31의 기명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서긍이 일일이 높이, 너비, 지름, 용적까지 자세히 언급할 수 있었던 것도 이들 器皿이 官物로서 그가 수시로 접할 수 있었던 때문이라 여겨진다.

그리고 재료가 언급되지 않은 기명은 대개 구리로 만들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청자라는 磁器가 나타날 때까지 초기 고려인들은 주로 瓦器, 陶器 등의 질그릇이나 구리로 만들어진 그릇을 사용하였던 것 같다.

이는 咸平 8年(고려 穆宗 8年 서기 1005년)에 고려의 御事民官侍郎이란 벼슬에 있던 郭元이 宋에 가서 「백성들 집에서 쓰는 기명은 모두 구리로 만들었다(士民家器皿 悉銅爲之)」[2]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당시 사용되던 그릇들이 구

리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었다고 추측된다.

卷 31의 末尾에 갑자기 甲戌年에 구리 15,000근으로 주조한 巨鍾이 普濟寺(後日의 演福寺임)에 걸려 있으며 또 鍾身(腹)에 飛仙의 文樣이 있었다고 전한다.[3]

이 종은 鍾身에 나있는 飛仙이란 문양장식으로 보아 서기 725年에 주조된 上院寺銅鍾(國寶 36號)과 서기 770년에 주조된 聖德大王神鍾(國寶 29號) 貞元二十年銘鍾(禪林寺鍾 804년 주조)[4] 南源實相寺鍾[5] 등과 같이 지금은 亡失된 신라종의 하나로 여겨진다.

보통 한국종의 양식에서 보면, 신라시대에는 「飛天像」「奏樂天人」이, 高麗時代에는 合掌한 1軀의 飛天이나 菩薩像이, 이조시대에는 「菩薩立像」이 鍾身腹에 彫飾되어 있는데[6] 서궁의 기록만으로 본다면 이 종은 적어도 高麗前期나 新羅의 종으로 여겨진다.

重兩은 아래와 같다(1斤을 16兩으로 잡는 것은 현대적인 수치인데 이것이 여기에도 적용이 될지 모르겠다)

가. 黃龍寺鍾(754년) 重兩 497,581

나. 上院寺鍾(725년) 重兩 3,300(鍮놋쇠)

다. 聖德大王新鍾(770年) 重兩 120,000

라. 貞元二十年銘鍾(804年) 重兩 26,500

普濟寺鍾은 구리만 15,000斤이 들어간 巨鍾으로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종들에 비해 손색이 없다.

---

(2) 高裕燮, 高麗青瓷, 乙酉文化社, 1954, p. 36. 및 秦弘燮, 청자와 백자, 교양국사 총서 3, 1974, p. 38

(3) 舊國寶 11號로 지정되었지만 지금은 해제된 「高麗演福寺鍾」이 있으나, 音管無, 雙龍, 鍾頂蓮花文, 鍾胴에 數條의 突帶가 있고 이 突帶의 上下에 四角形劃線이 있고 上部의 四面에 三尊佛을 浮刻, 上下의 梵字鍾口는 八稜, 元匠作(洪思俊, 「新羅鍾形考」 李弘稙博士回甲紀念韓國史論叢 1969, p. 643)이란 銘文과 기록으로 보아 이곳에 소개된 종과 부합되지 않는다. 또 우리 나라에서 제작된 한국종이 아니라 원나라에서 만든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音管이 없는 것은 이를 단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
또 이 종은 「忠穆王時 元工이 나서 鑄成하였다하여 開城 南門에 걸려 있었다고 한다」(李弘稙, 韓國古文化論考, 韓國文化叢書 14, 乙酉文化社, 1954, p. 71

(4) 李弘稙, 韓國古代史의 硏究, 新丘文化社, 1971, pp. 612~632

(5) 黃壽永, 佛敎와 美術, 悅話堂美術文庫 25, 1977, p. 115

(6) 文化財大觀 寶物篇(下), 文化財管理局 1971, p. 16 및 李浩官, 高麗時代 梵鍾樣式의 硏究(油印物), 1976, p. 100

이제까지 발견, 보고되어 있는 신라시대의 종은 모두 9점으로 다음 표와 같다.[7]

	鍾 名	年代	高	口徑	飛 天	備 考
1	上院寺鍾	725	5.5尺	3尺	雙飛 跪坐 奏樂 (橫笛, 하-ㅋ)	現 存
2	无盡寺鍾	745	2.4尺	1.86尺	雙飛 跌坐(?)奏樂 (橫笛, 腰鼓)	亡 逸
3	奉德寺鍾	771	11尺	7.5尺	單飛 跪坐 供養(香爐)	現 存
4	新發見鍾	804	4.03尺	2.28尺	雙飛 跌坐 奏樂 橫笛 腰鼓	動亂中破損
5	蓮池寺鍾	833	3.8尺	2.2尺	單飛 奏樂 腰鼓	日本福井縣現存
6	竅興寺鍾	856	—	—	—	亡 逸
7	松村大寺鍾	904	2.2尺	1.55尺	單飛 胡坐 奏樂 腰鼓	日本大分縣現存
8	雲樹寺鍾	?	約 2尺	1.46尺	雙飛跪坐奏樂橫笛 腰鼓	日本島根縣現存

(李弘稙, 1971. p. 628)

또 일부 수점이긴 하지만 瓦尊, 陶尊, 陶爐, 水瓮이 卷 32에 언급되어 있고 특히 後者인 陶尊, 陶爐, 茶俎중 翡色小甌는 색깔이 翡色으로 되어 있어 다시 말하여 青磁라고 뚜렷하게 그릇의 특색을 밝혀주고 있다.

翡色 또는 秘色은 象嵌技法, 線과 함께 고려청자가 갖고 있는 특색 중의 하나인데, 宋의 太平老人이 釉中錦에서 28가지의 天下第一品 중 高麗青磁의 秘色도 그중 하나라고 꼽을 정도로 翡色(秘色)은 당시에 있어 청자의 대명사이며 고려의 특산품이기도 한 것이었다.[8]

보통 釉藥의 使用, 火度, 胎土의 굳기에 따라 土器(Clay Ware), 陶器(Earthen Ware), 炻器(Stone Ware), 磁器(Porcelain)의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土, 陶器는 500～900°C,[9] 炻器는 1100°C, 磁器는 1200～1300°C의 고

(7) 李弘稙, 前揭書(註 4) p. 628의 表에 南原 實相寺의 鍾이 追加됨. 그중 禪林寺 또는 貞元二十年銘의 銅鍾은 月精寺에 보관되어 있었다가 6.25 동란시 녹아 파편으로 되어 버렸다(p. 632).

(8) 이 말은 韓致奫의 海東繹史 속에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당시 일급품으로 지정된 28가지 품목은 아래와 같다.

宋 太平老人撰釉中錦

監書, 內酒, 端硯, 洛陽花, 建州茶, 蜀錦定磁, 浙漆, 吳紙, 晋銅, 西馬, 東絹, 契丹鞍, 夏國劍, 高麗秘色, 興化軍子魚, 福州荔眼, 溫州掛, 臨江黃雀, 江陰縣河豚, 金山鹹鼓, 簡寂觀苦筍, 東華門把鮓, 京兵, 福建出秀才, 大江以南士大夫, 江西湖外長老, 京師婦人, 皆爲天下第一 (金元龍, 韓國美術史, 1968, p. 299).

(9) 우리 나라의 경우 청동기시대와 초기철기시대에 만들어지던 무문토기도 기껏해야 573°C 이하에서 구어졌다(Choi Mong-Lyong, "Analyses of Plain-coarse Pottery from Chŏlla province, and the Implication for Ceramic" Technology and so-called Yŏngsan River Valley Culture Area. 韓國考古學報 11, 12合輯, pp. 261～276).

온으로 구워진다.

炻器와 磁器의 경우 이런 고온을 내기 위해 굽는 시설물로서 室窯나 登窯를 필요로 했을 것이다. 또 자기의 경우 태토(胎土)는 장석과 석영이 陶土化하여 耐火度가 높은 것이어야하며 유약(잿물)으로는 長石釉가 필수적이었다.[10]

磁器(Porcelain)중 청자(Celadon)[11]는 「유약 속에 있는 철분(철분이 1~3%가 있는 長石釉)이 還元焰(第一酸化鐵, FeO)에 의해 구워진 자기」[12] 혹은 「鐵鹽의 還元焰에 의한 青綠色瓷器」[13]로 정의된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이러한 굽기에 의한 土·陶·炻·磁器의 현대적 분류에 의하여 1123年에 만들어진 고려도경 卷 32에 나타나는 「陶器色之青者麗人謂之翡色…(도기의 색이 푸른 것을 고려인은 비색이라 하는 데…)」이란 구절을 본다면 여기에 사용된 陶器라는 용어는 잘못된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그 당시 陶磁의 구별없이 구운 그릇이란 모두 陶器로 통일해 불렀을 可能性도 있다.

青瓷란 青磁와 동의어로 요즈음에는 青磁란 말이 더 많이 사용된다.

青瓷란 名稱은 18代 毅宗(1147~1170) 世家에 비로소 나타난다.[14] 또 이때는 민가 50여채를 헐어 만든 정자중의 하나인 養怡亭에 청개와로 지붕을 덮을 정도로 청자가 알려지고 또 귀하게 사용되었던 시기이며(高麗史 世家 卷第18 毅宗 11年 4月 1日 丙申條. 毁民家五十餘區…養怡亭 盖以青甕…), 또 青磁의 編年上 象嵌青磁가 발생하였던 것도 이 무렵인 것이다.

서긍이 방문한 때는 1123년으로 宋의 말기이며 고려에서는 象嵌青磁가 발생하기 이전의 第1期, 象嵌青磁 發生以前단계(文宗~仁宗朝 서기 1047~1247)[15] 혹은 純青磁. 純正高麗青磁時代(서기 1050~1150)[16]로 서긍이 보고간 청자는 陽刻, 陰刻의 純青磁 또는 국보, 보물에서 자주 보이는 오리, 기린, 사자, 원숭이형의 모습을 한 象形青磁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10) 金元龍, 新羅土器, 1981, p. 20 및 韓國古美術의 理解, 1981, pp. 204~207.
(11) 英語로 표현하면 白磁는 porcelain으로, 青磁는 celadon이 된다. 青磁는 鐵分이 많이 含有된 釉藥에 의해 좌우된다.
(12) 金元龍, 前揭書(註 10), p. 223
(13) 高裕燮, 前揭書, p. 16
(14) 엄밀한 의미에서 青瓷란 말이 青磁보다도 올바른 표현이다(高裕燮, 前揭書, p. 24).
(15) 高裕燮, 前揭書, p. 82
(16) 金元龍, 韓國美術史, 1968, p. 285

이제까지 국보, 보물로 지정된 純青磁時期에 속하는 청자의 예는 아래 표와 같으며 모두 14점이 해당된다.

여기에서 당시 서긍이 보았다고 卷 32 陶爐條에 기록해 놓은 狻猊出香(사자꼴을 한 도제향로)이라는 翡色青磁는 純青磁의 향로로서 이와 같은 형태는 國寶 60號인 青磁獅子形鈕蓋香爐나 國寶 65號인 青磁麒麟鈕蓋香爐와 유사한 것으로 추측된다.

(1)	국보	60호	青磁獅子鈕蓋香爐	高	21.2cm
(2)	〃	61호	青磁飛龍形注子	高	24.3cm
(3)	〃	65호	青磁麒麟鈕蓋香爐(全晟雨藏)	高	20.0cm
(4)	〃	74호	青磁鴨形水滴(〃)	高 長	8.0cm 12.5cm
(5)	〃	94호	青磁素文瓜形花瓶	高	22.8cm
(6)	〃	95호	青磁七寶透刻香爐	高	15.5cm
(7)	〃	96호	青磁龜形水瓶	高	16.8cm
(8)	〃	97호	青磁陰刻蓮花唐草文梅瓶	高	43.9cm
(9)	〃	167호	青磁人形注子	高	28.0cm
(10)	〃	169호	青磁陽刻竹節文瓶	高	33.8cm
(11)	寶物	237호	青磁淳化四年(993年)銘壺	高	35.2cm
(12)	〃	344호	青磁陽刻葦蘆水禽文淨瓶	高	34.0cm
(13)	〃	416호	青磁透刻墩 4個	高	48.50cm
(14)	〃	452호	磁龜形水注	高	17.2cm

(1-10 國寶, 11-14 寶物)

四. 度量衡

卷 30～卷 32에 器皿을 설명하는 데 척과 용적에 관한 단위가 자주 사용되는데 이는 당시 고려에 입국했던 서긍이가 고려와 宋나라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던 도량형을 이용하여 器皿의 높이, 폭, 용적을 재어본 것으로 추측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척의 사용이 빈번했고 당시의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고려가 宋나라에서 사용하던 도량형 제도를 採擇하여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많다.

器皿 卷 31에 실린 은이나 혹은 구리로 만들어졌다고 믿어지는 淨瓶(높이 1척 2촌)을 현재 국보 92호로 지정되어 있는 青銅銀入絲蒲柳水禽文淨瓶(높이 37.5cm)과 비슷한 것으로 추측해 높이 1척 2촌대 37.5cm를 대비시켜 보면

1尺이 약 31.25cm가 나오며 유사한 다른 종류의 器皿도 이런 식으로 비교해 보면 1尺이 30cm 정도가 됨을 알 수 있다. 表 1[17]과 表 4[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서기 12세기경 宋나라에서 사용하던 척도는 알 수 없고 단지 그 이전에 사용하던 당척이 1尺=30.1cm이며 또 李朝 世宗 당시의 黃鍾尺이 1尺=34.72cm로[19] 세종조와 270년의 차이가 있어 비교하기는 곤란하며, 오히려 宋의 바로 이전인 당척이 그대로 宋나라에서도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하겠다.

이는 앞으로 고려도경의 연구에 있어서 서긍이 묘사해 놓은 은, 동, 백동제로 만든 똑같은 그릇을 발견하고 기록과 비교하여 그 당시에 사용했던 도량형제도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표 1〉 1尺의 길이

尺 種	黃鍾尺單位	單 位 (cm)	備 考
黃 鍾 尺	1.00000	34.72	本表는 表 2에 依據, 黃鍾尺基準에 依한 數値
周 尺	0.59929	20.81	
營 造 尺	0.89969	31.24	
造 禮 器 尺	0.82496	28.64	
橫 黍 尺	0.76046	26.40	
布 帛 尺(五禮)	1.28900	44.75	
布 帛 尺(遵守)	1.34600	46.73	
一 等 量 田 尺	2.86161	99.36	
黃 鍾 律 管	0.90000	31.25	

(註 18, 朴興秀, p.215)

〈표 2〉 1尺의 길이(m)

唐	隋	東魏	梁	宋	晋	魏	後漢	新	前漢	戰國	備考
0.301	0.274	0.348	0.249	0.247	0.24 正始元年 (240)弩机	0.243 永寧二年 (302)骨尺	0.235 建初六年 (81)銅尺	0.231	0.233	0.23	

(註 17, 森浩一, p.86)

(17) 森浩一, 古墳의 發生, 中公新書 65, 1965, p.86 表 7 「中國の尺の長さ」에서 引用

(18) 朴興秀「李朝尺度에 關한 硏究」 大東文化硏究 第4輯, 1967, p.203의 表 1 「記錄된 諸尺度關係値」 p.215의 表 14 「世宗때 諸標準尺길이 一覽表」 p.224의 表 20, 「世宗때 斛斗升合의 容積」에서 引用

(19) 朴興秀, 前揭文, p.179

〈표 3〉 世宗代 斛·斗升·合의 容積 (營造尺=31.24cm)

名稱 / 量器名	記錄値(營造尺寸單位)			容積			備考
	길 이	넓 이	깊 이	寸³	cm²	lit	
合	2.00	0.70	1.40	1.96	59.76	0.069	
升	4.90	2.00	2.00	19.6	597.59	0.598	
斗	7.00	7.00	4.00	196	5975.70	5.967	
小 斛(平石)	20.00	10.00	14.70	2940	89635.57	89.636	15×196
大 斛(全石)	20.00	11.20	17.50	3920	19514.10	115.514	20×196

(註 18, 朴興秀, p.220)

〈표 4〉

基準尺 / 關係尺	黃鍾尺	周 尺	營造尺	造禮器尺	縱黍尺	橫黍尺	布帛尺(五禮)	布帛尺(尊守)
周 尺	0.6	1.000	0.663	0.73	0.709	0.789	—	—
營 造 尺	0.899	1.499	1.000	1.09	1.15	1.18	—	—
造禮器尺	0.825	1.38	0.92强	1.000	1.07	—	0.64	—
布帛尺(五禮)	—	—	—	—	—	—	—	—
一等量田尺	—	4.775	—	—	—	—	—	2.126

(註 19, 朴興秀, p.203)

또 기명의 설명에 있어 용적단위도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서긍의 기술대로 따르면 당시의 기본적인 용적의 단위는 石—斗—升—勺으로 이 단위도 尺寸과 같이 宋과 고려에서 공통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짐작이 된다.

이와 같은 용적단위는 이조시대에 사용되고 있던 斛(十斗, 열말)—斗(말)—升(되)—合(홉)의 단위체계와 비교될 수 있으며, 박흥수교수에 의해 밝혀진 이조초의 용적단위는 營造尺에 의해 그 크기가 표 3에서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20]

이조의 「斛斗升合」의 용적단위도 고려, 송의 「石斗升勺」과 거의 비슷한 용적을 가진 것으로 추측되나 이 점도 앞으로 尺寸과 마찬가지로 같은 그릇을 발견해 실험에 의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尺寸」이나 「石斗升勺」은 당시의 도량형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이며, 이 연구는 서긍이 당시 보고 기록해 놓았으리라고 짐작이 되는 똑같은 그릇을 발견해 기록과 대조해 보아야만 가능하다.

(20) 朴興秀, 前揭文, p.203

五. 問題點

이상 두서없이 宣和奉使高麗圖經 器皿 卷30~32 器皿 1~3에 보이는 그릇들을 기술하고자 하였으며,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결론삼아 지적해보면 아래와 같이 되겠다.

(1) 宣和奉使高麗圖經은 中國側立場에서 기술한 民族誌的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분석은 당시 宋—高麗에 있어 文化의 공통점이나 상대적인 가치기준을 밝혀줄 것이며,

(2) 그중 여기에서 목적을 두고 있는 기명들은 영빈관의 일종인 순천관에 비치된 것들로서 당시의 최고급품일 가능성이 많으며 그릇에 많이 사용된 재료는 은, 동, 백동 등이며 심지어 금칠을 한 것도 보이고 있다. 그릇의 기능으로 보면 향료와 같이 일상용품보다는 접대용의 사치품이 많다는 점이다.

(3) 주로 은과 구리로 만들어진 그릇이 많이 언급되고 있으며 瓦·陶器類도 몇 점 소개되어 있으나 수량은 매우 적다. 이는 당시 瓦·陶器로 만들어진 질그릇이 서민용으로서 영빈관인 순천관에 다량 비치할 수 없었던 것인지 또는 모든 그릇이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구리로 대부분 만들어지고 있었던 때문인지 알 수 없다.

앞으로 민가에서 주로 사용되던 그릇이 어떠한 것인지 주의해 찾아 볼 필요가 있다. 이는 고고학적으로 고려시대의 민가에 속하는 유적을 발굴함으로써 가능해지는데, 고려청자로서의 青陶는 당시까지만해도 수적으로 적고 또 고가품이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분명한 것은 청자가 당시의 동제품을 충실히 모방하고 있는 점이다.

(4) 여기에서 나타나는 길이의 단위인 「尺寸」과 용적의 단위인 「石斗升勺」이 이조시대의 도량형제도와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또 고려와 송나라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던 국제적인 도량형제도가 있었는지는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 중의 하나이다.

이는 당시 서긍이 보고 기술해 놓았던 그릇들이 고고학적으로 발견되고, 또 이들을 기록과 비교해 봄으로써 가능한 일이다.

또 형태에 따른 명칭과 기능도 아울러 생각해 보는 것은 당시 器皿을 둘

러싸고 있던 생활상과 풍습을 복원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다.

(5) 주지하다시피 고려도경은 상감청자의 편년설정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자료이다. 그러나 앞으로 상감청자의 연구에 있어서 편년설정과 미적가치 뿐만 아니라 각각의 그릇에 따른 실제의 기능적인 면, 은과 구리로 만들어진 다른 그릇과의 비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청자로 모방되어 나타나는 시대적인 배경이 아울러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